

중국 AI 모델 고도화 지속, 전기차는 무역 리스크 부각



Hana China Weekly | 2026.9.23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알리바바(BABA.US):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 공개

- 9/22 알리바바는 2026 Apsara Conference에서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을 공개. 알리바바 산하 T-Head가 개발한 Zhenwu V900은 전작 Zhenwu M890 대비 연산 성능을 약 3배 높였으며, 최대 50만 개 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해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도록 설계. 2027년 1분기 양산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엔비디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 제품으로 평가.
- AI 모델 부문에서는 현재 Qwen 4를 학습 중이라고 밝히고, 후속 Qwen 4.5와 Qwen 5의 모델 규모를 5조~10조 파라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 이는 현재 주력 모델인 Qwen3.8-Max 대비 모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복잡한 장기 추론과 에이전트 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알리바바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AI가 데이터 검증, 실험 설계, 오류 진단과 학습 최적화를 반복 수행하는 재귀적 자기개선 기술도 적용하고 있으며, Qwen3.8-Max의 성능 개선에도 이를 활용했다고 설명.

이차전지: 2027년 중국 배터리 수요 증가세 둔화 우려 확산, 배터리 업계 내부적으로는 낙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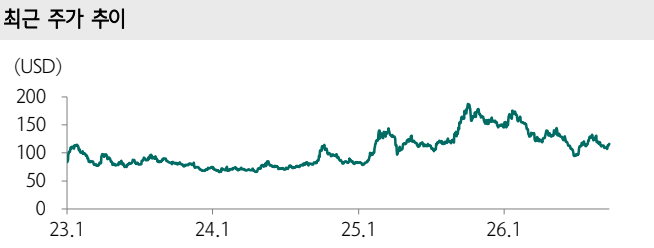
-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EV 시장 부진과 ESS 수요의 선반영으로 인해 내년 배터리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그러나 현재 중국 주요 배터리 공급망 기업은 80~90% 이상의 가동률 기록 중이며 배터리 업계는 시장보다 수요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 중인 것으로 파악. 2028년 이후 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전기차: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기업에 자발적 수출 제한 요구

- EU가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부상. 9/18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점유율을 약 15%(현재 33%)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EU가 직접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 올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추가 관세 부과 검토 가능성이 여러 차례 보도됐으나 아직 실제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EU는 자발적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현지 투자 확대 및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알리바바

상장 국가
미국/홍콩
섹터
이차전자
시가총액(조원)
391.6



금융 서비스 AI 에이전트 개편

- 9/18 Alipay+, Antom, WorldFirst, Bettr 등 주요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대규모 제품 개편을 발표. 결제, 외환, 계좌, 자금관리 업무를 AI에 위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재편. 글로벌 상거래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확대에 나서는 모습.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 공개

- 9/22 알리바바는 2026 Apsara Conference에서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을 공개. 알리바바 산하 T-Head가 개발한 Zhenwu V900은 전작 Zhenwu M890 대비 연산 성능을 약 3배 높였으며, 최대 50만 개 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해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도록 설계. 2027년 1분기 양산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엔비디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 제품으로 평가.
- AI 모델 부문에서는 현재 Qwen 4를 학습 중이라고 밝히고, 후속 Qwen 4.5와 Qwen 5의 모델 규모를 5조~10조 파라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 이는 현재 주력 모델인 Qwen3.8-Max 대비 모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복잡한 장기 추론과 에이전트 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알리바바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AI가 데이터 검증, 실험 설계, 오류 진단과 학습 최적화를 반복 수행하는 재귀적 자기개선 기술도 적용하고 있으며, Qwen3.8-Max의 성능 개선에도 이를 활용했다고 설명.

AI 소프트웨어

Z.AI(2513.HK): 사용자 코드 데이터 업로드 논란에 대한 시정 조치 완료

- 9/21 ZCode의 사용자 코드 데이터 업로드 논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ZCode 코드베이스를 오픈소스로 공개. Z.AI는 관련 코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모델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힘. MaaS 플랫폼에 모델 호출 후 데이터의 플랫폼 저장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미보관' 옵션을 도입할 예정으로, 기업 고객의 데이터 보안 우려 완화에 나섬. Z.AI 주가는 장 초반 약 3% 하락했으나 시정 조치 발표 이후 낙폭을 만회하며 1.8% 상승 마감.

문샷AI(비상장): Kimi K3, Amazon Bedrock에 제공되기 시작

- 9/21 문샷AI의 주력 오픈웨이트 모델 Kimi K3가 아마존웹서비스의 생성형 AI 플랫폼 Amazon Bedrock에서 제공되기 시작. Kimi K3는 2.8조 파라미터와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하며 코딩, 문서 분석,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 등을 겨냥. AWS와 문샷AI는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Kimi K3 라이선스는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의 연간 매출이 2,000만달러를 넘을 경우 유료 계약을 요구하는 구조.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실제 수익화에 나서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AI 모델: 중국 AI 7개 기업 합산 ARR 107억달러 추정

- 9/18 미국 리서치 기관 Rhodium Group에 따르면 DeepSeek, Moonshot AI, Z.AI, 미니맥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콰이쇼우 등 중국 주요 AI 기업 7곳의 ARR 합산 규모는 약 107억달러로 추정. 오픈AI와 앤트로픽 합산 매출의 약 10% 수준이며, 바이트댄스가 7월 기준 ARR 40억달러로 중국 업체 중 1위, 알리바바가 8월 기준 24억달러로 뒤를 이음. 중국 AI 기업의 높은 기업가치와 투자 확대에도 미국 선두 업체와의 수익화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

미니맥스(0100.HK): 싱가포르 정부 프로그램 구독 지원 대상에 포함

- 9/18 싱가포르 정부의 국가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미니맥스 에이전트, Hailuo AI, 미니맥스 오디오 등이 무료 AI 구독 지원 대상에 포함.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싱가포르 성인에게 6개월간 AI 도구 구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주도 교육 프로그램 편입에 따른 해외 사용자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9/18 미니맥스 주가는 18.9% 상승 마감.

텐센트뮤직(1698.HK): AI 음악 제작 도구 내부 테스트 중

- 9/22 AI 음악 제작 도구 'MusicBuddy'를 내부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도. MusicBuddy는 대화형 AI 인터페이스와 멀티트랙 편집 기능을 결합해 자연어로 악기 변경, 트랙 수정, 가사 편집 등을 지원하고, 음악 제작부터 배포와 홍보까지 연결하는 구조. AI 음악 제작 서비스 확대 기대와 기존 실적 모멘텀이 함께 반영되며 9/22 주가는 5.6% 상승 마감.

텐센트(0700.HK): 신형 AI 이미지 모델 'Hy-Image-3.5-Preview'를 공개

- 9/22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과 편집을 지원하는 신형 AI 이미지 모델 'Hy-Image-3.5-Preview'를 공개. 텍스트-이미지 생성, 이미지-이미지 생성, 멀티턴 편집을 지원하며 최대 4K 해상도 출력 가능. 텐센트는 전작 대비 성능이 약 30% 향상됐다고 설명했으며, 위안바오와 영상 편집, 디자인 도구 등 자사 서비스에 순차 적용 중.

반도체/AI 인프라

CXMT(688825.SH): 5세대 DRAM 공정 플랫폼 G5 양산 공식 발표

- 9/20 5세대 DRAM 공정 플랫폼 G5 양산을 공식 발표. 쿼드러플 노광 기술을 적용해 메모리 어레이의 유효영역 하프피치를 11.95nm까지 축소했으며, 이전 세대 대비 웨이퍼당 다이 수를 최소 50%로 확대. G5 기반 24Gb LPDDR5X 제품 2종도 함께 공개했으며 현재 양산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10nm급 첨단 DRAM 공정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는 흐름.

반도체: EUV 없이 DUV 노광장비를 활용한 선단 공정 통합 성공

- 9/19 대만 Digitimes는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EUV 없이 DUV 노광장비를 활용한 3nm 이하 GAA CMOS 트랜지스터 공정의 초기 통합에 성공했다고 보도. 아직 양산 단계와는 거리가 있으나, 미국의 첨단 노광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DUV 장비를 활용한 선단공정 개발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능성에 대한 관심 확대.

비렌테크(6082.HK): 유상증자 부인, 신제품 출시 기대감 형성되며 주가 상승

- 9/18 비렌테크는 시장에서 제기된 10억달러 규모 추가 유상증자설을 부인. 차세대 플래그십 AI 칩 BR20x가 최종 파라미터 조정과 디버깅, 검증 단계에 있으며 이후 클라우드 사업자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메모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되며, 추가 증자 우려 완화와 신제품 출시 기대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9/21 비렌테크 주가는 12.2% 상승 마감.

화웨이(비상장): 자체 'Tau Scaling Law'를 적용해 공정 미세화 제약 일부 보완

- 9/22 SCMP에 따르면 번스타인은 화웨이의 최신 모바일 AP Kirin 9050 Pro가 자체 'Tau Scaling Law'를 적용해 공정 미세화 제약을 일부 보완했다고 평가. Kirin 9050 Pro는 7nm급 공정 기반으로 추정되지만 Geekbench 6 멀티코어 테스트에서 애플의 3nm A17 Pro를 상회했으며, 화웨이와 애플 모바일 칩 간 기술 격차가 이전 세대 약 4년에서 약 3년으로 축소됐다고 분석. 다만 Kirin 9050 Pro의 성능은 애플 최신 2nm A20 Pro 대비 약 30% 낮은 수준으로 평가.

해광정보(688041.SH): 기존 데이터센터 중심에서 로봇까지 사업 영역 확대

- 9/21 해광정보는 기존 데이터센터 중심 사업에서 로봇과 머신비전, 스마트 제조 등 Physical AI용 칩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대. 9/22 저전력 임베디드 및 엣지 컴퓨팅을 겨냥한 CPU1000 시리즈 신제품을 선전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로봇과 머신비전, 스마트 제조 등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기기용 수요를 겨냥. 해광정보는 공식 위챗을 통해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컴퓨팅 파워를 물리 세계로 확장”으로 제시했으며,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성능 컴퓨팅에서 엣지와 로봇용 반도체까지 제품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중국 내 Physical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산 CPU 업체의 신규 성장 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주목.

CATL

상장 국가

중국/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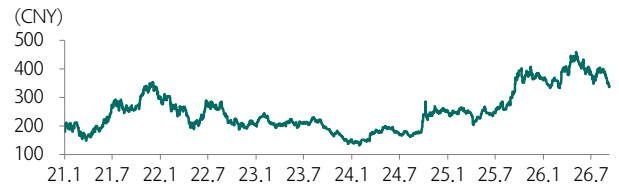
섹터

이차전지

시가총액(조원)

270.7

최근 주가 추이



헝가리 공장 생산라인 시험 가동 시작

- 9/22 CATL은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첫 2개 셀 생산라인의 시험 가동을 시작. 이번 시험 생산은 양산에 앞서 생산설비와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양산 개시 시점은 공개하지 않음. 공장은 지난 8월 사용승인을 취득한 데 이어 관련 허가를 모두 확보했으며, 시험가동에 앞서 통합오염방지관리(PPC) 허가 요건도 충족. 헝가리 공장은 독일에 이은 CATL의 두 번째 유럽 배터리 생산기지로, 2023년 여름 첫 셀 생산동을 착공해 2026년 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 다만 시험생산 개시는 당초 목표였던 2025년 말~2026년 초 대비 지연됨. 향후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연산 100GWh 규모로 CATL의 중국 외 최대 생산기지가 될 예정.

미국 픽업트럭용 톨 배터리 개발, 미국 시장 제약에도 사업 확대 지속

- 9/20 CATL은 미국 픽업트럭에 필요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톨(tall)'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해당 배터리는 이미 미국 완성차 업체의 테스트를 완료. CATL은 미·중 갈등과 안보 우려에 따른 높은 관세 및 현지화 요건 등으로 미국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의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해 미 국방부는 CATL을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CATL은 이를 부인. 또한, 미국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이후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중국 업체의 전기차·배터리 직접 수출 및 현지 생산시설 투자가 어려운 상황.
- 이에 CATL은 신규 배터리 기술을 미국 기업에 라이선스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CATL이 Ford 및 Tesla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활용 중인 기술 라이선스 방식과 유사. Ford는 최근 CATL과의 협력 범위를 ESS 배터리 생산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일부 미 의회 의원과 디트로이트 완성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음.

DHL 그룹과 MOU 체결, 유럽 친환경 화물운송 회랑 구축

- 9/18 CATL과 DHL그룹은 유럽 내 친환경 화물운송 회랑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신규 MOU를 체결, 물류 전동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 CATL에 따르면 잠재적 협력 분야에는 전동화에 적합한 운송 회랑 선정, 전기차 제조업체 참여, 이동형·고정형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교환 시범사업 등이 포함.

2차전지

이차전지: 2027년 중국 수요 둔화 우려, 배터리 업계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 중

-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EV 시장 부진과 ESS 수요의 선반영으로 인해 내년 배터리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그러나 현재 중국 주요 배터리 공급망 기업은 80~90% 이상의 가동률 기록 중이며 배터리 업계는 시장보다 수요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 중인 것으로 파악. 수요 증가에 비해 마진 개선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2028년 이후 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이차전지: 중국 공업정보화부, 배터리·완성차 업체 간 대립 해석 경계

- 9/2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대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특히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치중한 배터리 조달은 기술·품질·장기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Sunwoda(300207.CH): 메가와트급 충전소 1만개 구축 목표

- 9/17 Sunwoda는 15C 스마트 플래시 충전 배터리 시스템을 공개하고, 2027년 말까지 플래시 충전 생태계 내 메가와트급 충전소 1만개 구축을 목표로 제시. 신규 배터리 시스템은 상온에서 10%→70% 충전에 5분, 10%→97% 충전에 9분이 소요되며, 1분 충전으로 약 100km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음. 영하 20℃에서는 10%→97% 충전에 15분 소요. BYD가 지난 3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신규 플래시 충전기를 공개한 데 이어 홍치, 동평, 샤오핑 등도 배터리 및 초고속 충전 인프라 기술을 잇따라 공개. 중국의 플래시 충전 경쟁은 기술 공개에서 충전 네트워크 확대 단계로 이동 중.

산업재/원자재

전력 장비: 글로벌 공급 부족 완화로 중국 전력 장비 업체에 우려 제기

- 9/21 무역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 부족 완화로 중국 전력 장비 업체의 수출 전망 악화 우려. 미국·유럽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변압기·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한계 공급자 역할을 해온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

사원전기(002028): 9/22 주가 급락, UBS 목표가 38% 하향

- 9/21 UBS는 사원전기 목표가를 230위안에서 142위안으로 약 38% 하향,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이로 인해 사원전기 9/22 주가 -8% 급락. 중국 화력 설비 수요는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동방전기(600875.CH)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희토류: 중국의 높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제약 중

- 9/2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보다 완화된 대중국 기조를 보이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율 관세 및 대중 기술 수출 제한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관련 위협을 자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높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AlixPartners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최대 70%, 정제능력의 85%, 희토류 합금·자석 생산의 약 90%를 차지. 이트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는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공급망 내 주요 병목으로 작용.

전기차

전기차: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 자발적 제한 권고

- EU가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부상. 9/18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점유율을 약 15%(현재 33%)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EU가 직접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
-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대로 약 13배 증가한 반면 평균 수입가격은 하락.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BEV에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기존 관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약 45%에 달함. 그러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는 현재 10% 관세가 적용. 이후 중국의 대EU BEV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급증. 올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추가 관세 부과 검토 가능성이 여러 차례 보도됐으나 아직 실제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EU는 자발적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현지 투자 확대 및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9/18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자발적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또한, 9/22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투자를 지지한다고 밝힘.
- 9/22 BMW CEO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저가 중국산 자동차 수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보다는 자발적인 가격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힘. BMW는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옴.

BYD(1211.HK): 시안 공장 정상 생산 재개, 8,000명 채용 시작

- 9/22 BYD는 시안 생산기지에서도 8,000명 이상의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이후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시안 생산기지는 4개 공장으로 구성되며, 합산 연간 생산능력은 최대 150만대로 BYD의 최대 생산기지. 올해 상반기에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전환과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로 일부 차종의 생산이 제한되면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축소했으나, 현재 4개 공장 모두 정상 생산을 재개. 생산 정상화와 수출 주문 급증이 맞물리면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음. 시안 생산기지는 Dynasty·Ocean 시리즈의 주력 차종과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생산. 수출용 모델은 생산라인이 완전 가동되고 있는 반면, 내수용 모델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연간 생산량이 과거 고점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BYD(1211.HK): 프리미엄 브랜드 Denza 태국에서 Z9GT를 출시

- 9/18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Denza는 태국에서 Z9GT를 출시. Z9GT에는 BYD의 플래시 충전 기술과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BYD의 차세대 배터리·충전 기술 적용 지역을 태국으로 확대. Denza는 2024년 11월 D9 MPV를 앞세워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번 Z9GT 출시를 통해 현지 럭셔리 차량 라인업을 확대.

리오토(LI.US): 반도체 자회사 Mach 첫 외부 자금 조달 추진

- 9/21 리오토는 반도체 자회사 Mach Intelligent Cores의 첫 외부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며, 투자 전 기업가치는 약 150억위안(22.2억달러), 조달 규모는 수십억위안으로 알려짐. 이는 7월 별도 반도체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반도체 사업의 독립 운영을 강화하는 과정. 리오토의 자체 반도체 개발팀은 약 200명 규모로, 주로 AI 컴퓨팅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 차량용과 클라우드용 자체 반도체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 중. 또한, 리오토는 자체 개발한 Mach 칩, SiC 모듈, 주행거리 연장기를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
- 9/22 리오토는 여러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안경 제품을 통해 프로토타입 검증을 완료. 리오토 관계자는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가 성숙한 양산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향후 약 5년이 더 필요하며, 수명·충전 성능·비용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힘.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규제당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상장에 제동

- 9/2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음. 특히 지방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한 매출의 지속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일부 기업은 로봇 데이터 수집센터 및 지방정부가 초기 투자금의 80~90%를 부담하는 합작법인(JV)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문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고 상장 요건 충족에 기여하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독립적인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센터 관련 매출을 제외할 경우 일부 로봇 기업의 기업가치가 60~70%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중국 공급망 실사 착수

- 9/16 테슬라의 임직원과 엔지니어들은 중국 공급망 일부에 대한 실사에 착수. 이는 올해 말 Optimus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이후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 이번 실사는 양산을 위한 공급 독점성 및 생산 일관성 검증, 공급망 협력업체의 장비 디버깅 지원, 미국 공장의 제조 역량을 중국 공급업체로 이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테슬라는 이미 공급망 업체들에 발주를 진행했으며, 2026년 약 5만대의 Optimus를 생산해 글로벌 기가팩토리에 투입할 계획. 테슬라의 공급업체 실사 대상에는 열관리 부품 업체 삼화(002050.CH), 자동차부품 업체 균승전자(600699.CH), 새시 부품 업체 탁보그룹(601689.CH) 등이 있음.

유니트리(688836.CH): 신형 덱스터스 핸드 출시

- 9/21 유니트리는 신형 덱스터스 핸드 Dex5-S 출시. 실제 사람 손과 약 1:1 크기, 한 손 기준 22DOF·22개 모터를 탑재했으며 시작 가격은 3.99만원. 정밀 소형 감속기와 충격 보호 구조를 적용했으며, 모든 모터가 역구동 및 듀얼 엔코더 제어를 지원. 무게는 620g, 최대/지속 하중은 각각 2kg/1kg. Standard와 Pro 두 모델로 출시되며, Pro는 듀얼 엔코더에 촉각 센싱을 추가한 것이 핵심 차이. 기가비트 이더넷·USB·고속 485 등을 지원하며 손바닥 카메라도 직접 연결 가능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

동평자동차(0489.HK):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 10월 공장 투입

- 9/20 동평자동차는 올해 10월부터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 분류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연말부터 소량 시험생산에 돌입할 예정. 동평의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둥'과 4족 보행 로봇 '위안짜이'는 올해 8월 열린 2026 세계로봇대회에서 처음 공개. 샤오둥은 자동차 제조 현장의 자재 분류 작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며,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다양한 작업을 완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중. 동평자동차의 이러한 일정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흐름과 맞닿아 있음. 중국 완성차 기업은 자동차 사업을 통해 축적한 공급망·제조·SI 분야의 경쟁력을 로봇 산업에도 활용 중.
- 같은 날, 동평자동차는 해외 사업 확장 계획 공개. 동평자동차는 해외 시장에 누적 500억위안(약 74.1억USD)을 투자하고 50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 또한 해외 대형 생산기지 10곳과 해외 R&D센터 5곳을 구축하고, 2030년 해외 판매량 1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4.2	20.4	86.4	484.7	62.6	9,022.5	76.7	49,162.6	0.0	2026-11-19
기가디바이스(603986.CH)	3.6	22.8	43.7	184.4	29.6	606.2	44.1	618.4	11.1	2026-10-28
캠브릭론(688256.CH)	0.7	109.4	37.7	170.5	115.6	193.2	99.0	190.9	0.0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6.1	117.2	17.6	56.4	45.5	81.7	63.0	81.8	0.1	2026-10-15
비렌테크(6082.HK)	13.1	-	(0.7)	141.5	272.5	적지	흑자	적지	(0.2)	2027-03-30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0.8)	-	(9.7)	183.0	157.7	적지	흑자	적지	(3.1)	2027-03-30
북방화창(002371.CH)	(2.0)	61.6	17.3	27.6	31.7	37.8	49.5	36.7	0.0	2026-10-30
AMEC(688012.CH)	(1.4)	71.1	16.1	36.8	39.6	107.5	20.9	171.4	0.0	2026-10-29
SMIC(0981.HK)	(1.3)	46.0	5.9	26.8	19.9	106.8	28.4	100.1	(1.1)	2026-11-13
JCET(600584.CH)	1.0	53.0	7.4	12.8	15.0	46.5	42.2	56.6	2.7	2026-10-23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9.5	59.6	23.4	39.2	51.2	78.8	45.0	75.5	10.2	2026-10-30
빅토리자이언트(300476.CH)	6.6	26.4	26.5	65.9	79.3	89.7	94.6	73.1	(0.6)	2026-10-27
중지쉬창(300308.CH)	0.1	31.8	62.2	172.0	89.0	202.9	89.3	185.5	0.9	2026-10-30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0.9	21.4	31.2	63.3	37.4	74.0	34.0	71.0	0.0	2026-10-29
즈푸AI(2513.HK)	(4.9)	-	(0.6)	719.8	200.1	적지	적지	적지	(0.1)	2027-03-31
알리바바(BABA.US)	2.7	16.9	8.2	10.4	12.4	(15.4)	47.8	109.8	(0.6)	2026-11-25
텐센트(0700.HK)	7.8	12.4	18.7	9.9	9.4	2.6	6.0	24.2	(0.1)	2026-11-13
바이두(BIDU.US)	2.8	15.8	4.2	(1.4)	6.2	100.5	22.6	(14.8)	(0.3)	2026-11-18
레노버(0992.HK)	(2.2)	15.9	36.8	28.0	17.8	55.0	74.2	71.8	0.0	2026-11-16
샤오미(1810.HK)	3.0	22.2	8.8	(4.2)	18.6	(36.1)	22.9	(19.4)	(0.3)	2026-11-16
유비테크(9880.HK)	(1.1)	-	(4.6)	96.3	45.7	적지	흑자	적지	0.1	2027-03-31
BYD(1211.HK)	(0.2)	15.8	14.6	11.7	11.2	18.6	28.5	28.4	(0.4)	2026-10-30
CATL(300750.CH/3750.HK)	0.9	16.3	24.7	46.5	22.2	32.9	24.1	39.3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1.1	13.0	24.3	2.3	20.7	3.7	24.1	6.4	0.0	2026-10-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0.7)	20.4	16.5	31.6	26.6	56.3	39.1	50.0	(0.4)	2026-10-29
허사이테크(HSAI.US)	3.5	38.4	5.7	42.4	41.1	16.0	70.6	2.1	0.0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2.5	17.9	17.1	23.6	15.3	162.1	41.3	121.6	0.0	2026-10-27
사원전기(002028.CH)	(7.0)	25.7	22.9	31.2	30.4	31.6	38.2	30.7	(0.6)	2026-10-19
동방전기(600875.CH)	(0.4)	18.4	10.1	11.4	9.1	32.8	26.7	26.6	0.0	2026-10-30
평균	1.7	35.6	19.7	93.9	52.9	444.3	46.1	2,052.0	0.6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9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